전북금연지원센터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용동 344-2) 원광대학교병원 외래1관 1층
TEL | 063) 859-2400 ~ 2410 FAX | 063) 859-2414

전주매일

www.jjmaeil.com

2018년 9월 10일 월요일 (음 8월 1일) 제2127호 대표전화(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곽 경 문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송하진 도지사, 아-태 마스터스 유치 나서

"천년전북 자긍심 삼아"

말레이시아 개최 마스터스대회서 홍보 활발
개막식장에서 한지부채 · 농식품으로 인기몰이

성인들의 올림픽으로 불리는 마스터스대회 유치 활동에 나선 송하진 도지사가 말레이시아 현지에서 전북도를 홍보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송 지사는 도착 첫날인 지난 7일 쿠알라룸푸르에서 전북 우수 농식품 홍보 관촉 활동에 직접 나섰고 주 말레이시아 한국 대사관 한스타일 사업장을 방문하는 등 본격적인 행보에 들어갔다.

이튿날인 8일 페낭에서 열리는 제1회 아태마스터스 개막식장에서 전북 농식품 판촉홍보를 벌였고 2022 아태마스터스 대회 개최지로 전북이 최적지임을 알리기 위해 국제마스터스협회장을 비롯해 조직위원장, 말레이시아 체육부장관 등 주요 인사들을 접촉하는 등 일정을 소화해 내고 있다.

전북도가 추진 중인 재외공관 한스타일 사업이 현지의 열띤 호응 속에 추진되고 있다.

20번째로 추진한 주 말레이시아 한국대사관은 민원실과 관저 연회장이 한지조명, 한지 장, 한지조각보, 병풍 등 전북의 한지와 전통문화상품을 이용해 꾸며졌다.

7일 열린 기념식에서는 말레이시아 중앙부처 관계자 및 기업인, 현지 교포, 말레이시아 주재 대사 등 총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남원 국립민속국악원의 판소리로 시작됐다.

주 말레이시아 도경환 대사는 "우수한 전북한지를 활용하여 재외공관을 꾸밈으로써 한국과 전북도를 알리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감회를 밝혔다.

송하진 지사는 축사를 통해 "가장 한국적인 전통, 문화, 가치, 정체성을 갖춘 전북도 한스타일 사업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췄고 외교부 재외공관의 공공외교에 크게 기여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전주한지로 새롭게 연출된 연회장과 민원실이 타국에서 고생하시는 많은 분들께 고향과도 같은 따뜻함과 포근함을 전해주고 현지 방문객들에게는 한지의 매력과 한국전통문화를 알리는 대한민국 홍보의 장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김진성 기자

자전거 타고 '씽씽'… 전주시민 자전거 대행진 전주시는 지난 8일 시민 3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생태교통수단인 자전거에 대한 인식 확산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전주시민자전거 행진을 개최했다. 이날 자전거 행진에 참여한 시민들은 전주시청을 출발해 기린대로와 종합경기장사거리, 첫마중길, 전주역, (구)아중역을 지나 전주시청으로 다시 돌아오는 약11km 코스의 도심 도로를 함께 행진했다.

출판문화도시에서 책의 매력에 '흠뻑'

전주독서대전, 14일부터 3일간 한옥마을 일원서

기록과 출판문화의 도시인 전주만의 책 축제인 '2018 전주독서대전'이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전주한벽문화관과 완판본문화관 등 전주한옥마을 일원에서 펼쳐진다.

전주독서대전은 앞서 지난해 전국 단위 행사인 '대한민국 독서대전'을 성공적으로 치러낸 전주시가 국가대표 책의 도시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기 위해 올해 처음 개최하는 행사로, 시는 불과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시는 매년 전주만의 책 축제인 독서대전을 열 계획이다.

'기록과 기억'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독서대전은 출판·독서·서점·문화 관련 110여개 기관·단체 관계자와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전주한벽문화관과 완판본문화관, 향교 등 3개 공간에서 펼쳐진다.

세부적으로는 격동의 한국사에 대한 기록과 기억을 전해온 윤흥길 작가의 강연을 시작으로 총 140개의 프로그램이 준비되었다.

먼저, 오는 14일 오후 2시 전주한벽문화관 공연장에서는 '2018 전주독서대전'의 시작을 알리는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 작가' 프로그램에 '장마'와 '완장' 등의 작품을 통해 분단현실로 인한 개인 삶의 질곡을 누구보다 극적으로 그려낸 윤흥길 작가가 집필과정의 고통과 즐거움 현재 작업 중인 작품에 대해 진솔한 이야기를 들려줄 예정이다.

이어서 오후 4시부터는 전주독서대전의 개막행사의 일환으로 전주한벽문화관에서 연극 '전주책방'과 인디언수니와 이상한계절의 축하공연이 펼쳐진다.

첫날,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 작가' 프로그램 선봬
한벽문화관서 강연 · 음악 공연과 함께 진행
완판본문화간에선 책 표지 만들기 등 체험 다채

전주한벽문화관에서는 '읽다, 쓰다, 듣다, 놀다, 먹다, 찍다'의 6개 주제로 책방대표인 정지혜의 '당신을 위한 책 처장', 글쓰기 강사 은유의 '글쓰기의 최전선', 대중비평가 이영미의 '세상을 바꾸는 노래', 박성우 시인의 '아이 마음, 어른 마음', 한승태 작가의 '우리가 먹는 세상', 이광수 사진작가의 '사진으로 하는 인문학' 등 수준 높은 강연들이 색깔 있는 음악 공연과 함께 진행된다.

여기에, △기획전시 △전북문인협회 작가들이 준비한 전주를 노래한 시 △전주의 문화콘텐츠가 담긴 문학작품 △고 이정환 소설가의 삶과 문학작품 △역대 혼불 문학상 수상작품 등도 감상할 수 있다.

완판본문화관에서는 △책표지와 가방 만들기 △내 손으로 만드는 나만의 자서전 등 33개의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다.

또, 이곳 전시실에서는 전주의 책으로 선정된 '책 깎는 소년' 원화와 '2018 전주의 책 필사노트' 전시도 관람할 수 있다.

'책 읽는 공간'인 향교에서는 책방과 서점 조합이 함께하는 북마켓이 운영돼 따끈한 신간 도서들을 현장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입화로 책갈피 만들기 등 책과 할 수 있는 다양한 이색 체험도 즐길 수 있다.

전주시립도서관 관계자는 "처음 열리는 2018 전주독서대전에서는 유명 작가의 강연과 책·출판·독서 관련 다양한 체험행사, 전주의 책 전시, 북마켓 등 다양한 행사가 준비된 만큼 많은 시민들이 오셔서 함께 즐기시길 바란다"며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전주독서대전이 성공리에 치러질 수 있도록 안전과 프로그램 운영 준비 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무주반딧불축제 대성황

반딧불 · 낙화로 연결되는 빛의 축제로 주목
신비탐사 여건 개선 · 전통 부꽃놀이 선사
작년 시범운영 '반디별 소풍' 핵심 진행 호응

'자연의 빛 생명의 빛 미래의 빛' 제22회 무주반딧불축제가 9일 간의 대장정을 끝냈다.

9일 예체문화관 주 무대에서 펼쳐진 폐막식에는 황인홍 무주군수와 무주군의회 유송열 의장, 이성만 사)반딧불축제제전위원장을 비롯한 내빈들과 관광객, 그리고 지역주민 등 2,0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군민합창단의 반딧불축제 주제곡 합창으로 시작된 행사는 제22회 무주반딧불축제 하이라이트 영상 시청과 군민 대합창 '개똥벌레' 등의 순으로 진행됐으며 연예인들의 축하공연이 이어져 아쉬움을 달랬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문화체육부 선정 2018 대표축제의 이름을 걸고 개최됐던 축제를 성황리에 마무리하게 돼 기쁘다"라며 "군민여러분의 땀과 노고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고 9일 간 함께 즐겨주신 방문객들 덕분"이라고 공을 돌렸다.

이어 "23회 축제는 더 알차고 재미있게 준비를 해 세계인들과 함께 하는 글로벌육성축제로 인사를 드리고 싶다"라고 덧붙였다.

폐막공연에는 가수 금잔디와 배일호, 현상, 바바, 소명, 이환호 등이 올라 흥겨운 무대를 선보였으며 밤 9시 30분부터 남대천에서 펼쳐진 안성낙화놀이와 소망풍등날리기가 제22회 무주반딧불축제의 대미를 장식했다.

이번 반딧불축제에서는 올해 '반딧불'과 '반디별', '낙화'로 연결되는 빛의 축제로 주목을 받았으며 핵심이자 인기 프로그램인 '신비탐사' 여건을 개선하고 '낙화놀이' 규모를 늘려 무주에서만 만날 수 있는 전통 불꽃놀이를 선사했다. 작년에 시범적으로 운영했던 '반디별 소풍'은 핵심 프로그램으로 진행해 호응을 얻었다.

이외 대낮에도 살아있는 반딧불이를 볼 수 있는 △반디나라관(주제관)'을 비롯한 반딧불이의 먹이인 토종 다슬기와 치어를 방류하는 △'남대천 생명+', △'풍등날리기' 등이 인기를 누렸으며 전통방식의 △'남대천 섶다리 놓기'가 새로운 볼거리로 각광을 받았다.

어린이 방문객들을 위한 △'어린이 나라(건축사무소, 119안전센터, CSI 과학수사대, 동물병원 등 직업체험)'와 '이동환경교실' 그리고 △글로벌태권도시범을 비롯한 무주재능자랑 등도 축제의 재미를 더한 볼거리가 됐다. /무주=전문선 기자

'전통시장에서 점심먹는 날'

전북도, 활성화 나서

전북도가 '전통시장에서 점심먹는 날'을 운영하며 상시적인 전통시장 활성화에 나서 주목을 끌고 있다.

전통시장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과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전통시장을 방문해 점심식사를 하고 온누리상품권 활용해 장보기를 하며 전통시장 이용 붐조성을 위해 도청 직원들이 솔선해서 힘을 모으자는 취지에서 추진됐다.

지난 7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청 전 부서별로 매월 2회씩 출장이나 간담회, 구내식당 휴무일 등을 활용하여 전통시장에서 점심을 해결하기로 했다.

직속기관, 사업소에서도 소재하고 있는 지역의 전통시장에서 함께펼친다.

'전통시장에서 점심하는 날'을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운영하면서 온누리상품권 판매 촉진 활동 등을 통해 전통시장의 상인들도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도는 추석을 앞두고 10일부터 21일까지 온누리 상품권 구매행사와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범도민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김진성 기자